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779

JCCT 2023-9-94

## 창작 발레극 <‘그’ 소녀> 에 나타난 무대의상의 확장성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Stage Costumes in the Contemporary Ballet Play <‘That’ Girl>

유진영\*, 장소정\*\*

Jinyoung Ryu \*, Sojung Chang\*\*

**요약** 비 언어극인 무용에서 무대의상은 시각적 표현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창작무용에서 무대의상은 기존의 기본적인 역할인 장식성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성 그리고 동작을 위한 기능성 이외에 좀 더 작품에 밀접하게 관련된 확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창작 발레 <‘그’ 소녀>의 작품에 나타난 무대의상의 확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무대의상 디자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여 연구의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창작 발레극 <‘그’ 소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공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위로를 주제로 2개의 막으로 구성되었으며, 2막의 해방과 ‘한(恨)’의 춤에서 의상의 확장된 역할이 요구되었다. 의상 디자인은 위안부를 형상화한 ‘소녀상’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발레 동작의 기능성과 의상에 장치된 끈과 천의 운용의 용이성 등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3개의 초안 디자인과 재질의 실험을 거쳐 완성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방의 춤에서 사용된 끈과 ‘한(恨)’을 표현한 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무대의상의 시·공간간의 확장성, 조형의 확장성,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창작 발레, 무대의상 디자인, 일본군 ‘위안부’, 무대의상의 확장성, 문화 콘텐츠

**Abstract** In the creation of non-verbal dance performance, stage costume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visual expression and serve an expanded role in addition to its fundamental decorativeness, representation of status reflective of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act and functionality for the dance movement. We intends tha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xpanded role of the costumes in the creative ballet <‘That’ Girl>, and through this exercise, provide foundational data on and suggest new future directions for stage costume design. <‘That’ Girl> is composed of two acts, offering condolences and eliciting empathy by conveying the fear experienced by the victims of the time. The second dance act representing freedom and “Haan” requires this expanded application of costume design. The costume design was inspired by the “Statue of Peace” representing comfort women, and completed through three draft designs and material experiments testing the ease of operation of the strings and fabrics installed in the costumes as well as the functionality of the associated ballet movements. In conclusion, expansion of time & space, expansion of form and expansion of symbolic expression were shown in the dance of liberation using strings wrapped around the arms and through the cloth embodying ‘Haan’ hidden in front of the costume.

**Key words** : Contemporary Ballet, Stage Costum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pansion of Stage costume, Culture Contents

\*정희원, 서울디지털대학교 패션학과 객원교수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무대의상 디자이너)  
\*\*정희원,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1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10, 2023 / Revised: August 29,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tingo@naver.com

Dept. of Dance, Chung-ang Univ, Korea

## I. 서론

최근 워라벨의 추구하고 공연관람을 즐기는 MZ 세대의 성장,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연과 축제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공연관객의 수요를 증가시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상연되고 있다. 이 중에서 무용 공연은 가족단위가 관람하기 좋은 클래식 발레 등이 대중적인 인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근대에, 무용과 희곡의 결합 시도에 의해 탄생된 탄츠-씨어터와 같은 새로운 장르가 실험되고, 여러 장르의 컬래버레이션이 활성화 되어, 무용의 경계를 허물게 하면서 이제는 창작 무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1]. 그리고 창작 무용에서, 무대의상은 시각적인 영역과 작품의 메시지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극은 희곡의 대사로 극의 내용을 전달하지만, 비 언어극인 무용은 신체언어가 소통 매개체이며 의상은 희곡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시각 표현수단이다.

기존의 무용을 위한 무대의상의 역할은 발레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용수 동작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 인물의 지위와 성격을 표현하는 시대적 역할, 그리고 장식의 역할을 하는 미학적인 역할 등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창작 무용에서 무대의상은 기존의 관습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상 디자이너가 안무가와 작품의 주제성을 공유하는 창작 스토리텔링 과정 등을 거치면서 기존의 관습에 머무르지 않는 창의적인 의상 디자인을 구현하기도 한다[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작된 의상은 작품의 연출 의도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신체를 장식하는 역할 이상의 확장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무대의상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들이 사진 이미지 혹은 공연 실험의 의상 사진만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실제적인 공연 제작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무대의상의 확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3-7].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을 바탕으로 무대의상의 확장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연구로 창작 발레 <그'소녀> 작품의 안무, 음악, 조명, 영상, 소품 등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주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한 의상 디자인과 제작과정을 통해 무대의상의 확장성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무용창작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면서 추후 무대의상 디자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 II. 이론적 배경

1980년대 포스트모던 시대를 거치며 공연예술의 장르는 다양화 되었고 전문 무대의상 디자이너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혼종을 통한 새로운 예술적 기반을 창출하는 문화상호주의가 확산되었다. 특히 동양 전통 예술에 나타나는 화려하고 볼륨이 큰 무대의상에 주목한 연극 인류학자인 의제니오 바르바는 동양의 전통예술에서는 의상이 입혀짐으로써, 배우의 에너지의 전달이 확대된다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무대미술적인 의상(costume scenographic)”을 개념화하였다[8]. 이는 의상이 역사적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고중에 치중하거나, 장식적 역할을 하던 서구의 무대의상에 비해, 관객과 교감이 밀접한 수평적인 공간에서 압축된 대사들에 인체의 움직임과 시각적으로 강한 의상들과의 조합에서 전달되는 추상적인 상징들은 새로운 무대의상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극학자인 파비스는 공연이 전달하는 상징성에 대한 논의에서 연출, 조명, 무대 미술 등 연극적 의도안에서 창작된 무대의상을 관객은 상징의 전달매체로 인지한다고 하였다[9]. 즉, 단순히 무대의상을 옷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의 질감, 색상, 형태, 움직임을 통한 변화 등의 모든 요소들을 지각하고 이를 통한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방식은 21세기 인터넷의 보급 이후의 동시성, 수평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 관객의 감각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층적 인식구조가 가능한 무대의상의 역할을 ‘확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팽창’, ‘확대’ 되고자 하는 사전적인 정의인 ‘확장성’의 개념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확대되는 것들, 형태적으로 과장되거나,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질 등으로 해석하였다[10].

이에, 공연과 무대의상 분야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확장성을 종합하여 살펴본 후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도출한 확장성의 유형은 다음 표 1과 같다[6-10]. 의상의 질감과 고증된 형태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의 확장성, 의상 실루엣의 길이나 크기의 조정에 의한 조형의

확장성, 그리고 연출적 의도가 부여된 의상의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표 1. 의상과 공연 분야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확장성의 유형  
 Table 1. Types of Extensibility shown in previous research in the field of costume and performance

저자	확장성의 유형
라세영	신체, 시·공간, 표현, 공감각, 소통
허정선	의상의 연장성에 의한 공간의 확대
김민지, 간호섭	시·공간, 개념, 조형성
유진영, 홍나영	내러티브, 시·공간, 정치·사회·문화적 상징성, 조형
유진영	지각, 공간, 상징
↓	
시·공간, 조형,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	

### III. 본 론

#### 1. 창작발레 <‘그’ 소녀>의 작품 구성과 내용

2017년 K-발레월드 중견안무가전에서 상연된 창작 발레 <‘그’소녀>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군대로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을 주제로 한 공연이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린 일본 군부는 식민지에서 군인과 ‘정신대’를 모집하여 강제적 징용을 자행하였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이 미비한 상태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일제 강점기의 문제들은 잊혀졌다. 그러나 1980년대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쟁의 피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추궁과 배상을 요구하였다[11]. 또한 용기를 낸 일부 생존자들이 국제기구에서 참상을 증언하고, 기금을 모아 세계 여러곳에 소녀상을 설립하는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2015년 한·일 지도자 사이의 회동에서 논의되었으나, 두 국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해결책에 대한 논란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문화·예술적인 시각으로 되짚어 볼 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2011년 12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앞에서 정례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연극, 무용, 퍼포먼스 공연들이 행해져 왔다[12].

장소정 안무가의 창작 발레극 <‘그’소녀>는 ‘위안부’

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그’소녀>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이들의 고통을 다루고, 위로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 제작되었으며 안무, 장소, 상연 기간, 스태프 구성 등의 작품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창작 발레극 <‘그’소녀>의 작품 개요  
 Table 2. Summary of contemporary Ballet <‘that’ gi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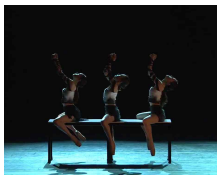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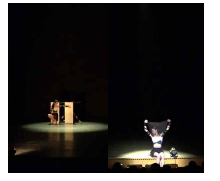



작품명	‘그’ 소녀
안무 및 출연	장소정/김민수, 조혜인, 한슬기
음악	베토벤 no.3. op.37 외
스태프	유진영 (의상), 유준규(무대감독), 김호진(조명), 김정환(영상촬영 및 제작)
공연일시	2017년 11월 21일 pm 8.00
공연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주제	세상이 나의 이름, 나의 아픔을 모른다 하여도...
작품 구성	1막 : 공포, 2막 : 위로

전체 2개의 막으로 구성되었으며, 1막에서는 소녀들이 전쟁 중에서 겪은 공포이고, 2막은 관객과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는 위안이다. 등장인물은 총 3명의 여성으로 피해자 역할이다. 작품 구성과 장면별 내용은 표 3과 같다.

1막은 피해자들이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성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였다. 1막의 장면 1 (a)에서 책상 위에 나란히 앉은 소녀들은 위로 올려 기도하는 듯한 동작과 수그러 책상을 내려치는 동작의 반복을 통해서 이들이 강제로 억압된 상황의 억울함과 구원에 대한 기도를 표현하였다. (b)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3인무이다. (c)의 장면 3은 무대 뒤편 전면에 어둡고 잔인한 인상의 일본 군인의 얼굴이 크게 영상으로 투사되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대의 앞쪽의 소녀들은 춤을 추면서 점차 무대 오른쪽의 협소한 공간 안에 갇힌다. 이는 무대 전체 크기의 일본군과 대비되는 작은 크기의 소녀들을 시각적으로 대비시켜, 전쟁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격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시대적 불행에 이미지화하여 표현하였다. 이어진 (d)의 장면은 가로로 길게 투사된 길의 조명과 그 위에서만 춤을 춤으로써 절망적인 소녀들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e)는 서로의 등을 기대고 발을 붙인채, 옆으로 손을 맞잡은 상태로 외부를 향해 있는 방어적인 3인무를 통해 두려움 속의 연대와 억압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1막은 조명에 의해 공간을 구획지어 그 안에서만 춤을 추게하는 연출을 통해 소녀들의 갇힌 상황을 직설적

표 3. <'그' 소녀>의 장면 구성과 내용  
Table 3. Scen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at Girl'

1막	장면1	장면2	장면3	장면4	장면5
공포	 (a)	 (b)	 ( c )	 (d)	 (e)
내용	간힘, 억압, 구원을 기도함.	간절함의 표현	군인얼굴의 영상으로 감시, 두려움의 표현	벗어나지 못하는 길 (전쟁)을 조명을 통해 연출함.	고립된 소녀들
2막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위안	 (f)	 (g)	 (h)	 (i)	 (j)
내용	간혀있는 신세	탈출의 발짓과 자유를 갈구하는 내면의 한(恨)	수어 : 세상이 나의 이름, 나의 아픔을 모른다. 하여도...	해방에 대한 염원 : 팔에 묶었던 끈을 풀어서 춤을 춤.	자유에 대한 염원과 서로에 대한 위로

으로 표현하였다. 배경 음악은 군화 발소리를 연상시키는 규칙적인 템포의 락(rock'n roll)을 사용하여 점차 속도를 빠르게 하여 피해자들이 잔인한 전쟁, 군인들에게 물려서 겪은 공포를 의미하고 있다.

2막은 책상 위라는 좁은 공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1인무로서 소녀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며 시작하였다(f). 그래서 소녀들은 (g)와 같이 무대의 왼쪽에서 책상을 뒤집어서 벽을 만들어 벽을 치는 발동작을하고, 오른쪽 공간에서는 팔과 다리를 넓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탈출을 나타내었다. 그러다가 (g)와 같이 무용수가 무대 끝에 걸터 앉아서 상의 앞에서 검정의 반투명한 천을 끄집에내어 위로 당겨 펼친다. 옷 안에 숨겨져 있다가 나온 이 천은 의상이라기 보다는 이들의 축적된 감정인 한(恨)을 전달하는 상징의 매개체이다. 좌절된 탈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h)의 장면에서 세 명의 무용수는 수화를 활용한 동작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인 “세상이 나의 이름, 나의 아픔을 모른다하여도...”를 춤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i)는 소녀들의 꿈의 공간으로써 팔에 감겨있던 검정색의 긴 끈을 풀어서 끈 춤을 춤으로써, 해방을 표현한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간혀있더라도 소녀들은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마음을 (j)와 같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모여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며 끝을 맺는다.

2막의 조명은 1막의 길 조명을 한 번 더 활용하였으며, (i)의 장면에서 무용수들이 끈을 활용한 해방의 춤을 출 때, 무대 전체를 꽃 모양의 고보를 활용한 조명을 사용하여 꽃밭에서 춤추는 해방을 표현하였다. 음악은 베토벤의 no. 3, op. 37 E장조 곡인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등의 관악기와 피아노 연주곡이다. 관악기는 관에 호흡을 불어넣어 연주하는 악기로써, 무용수들의 호흡과 악기의 호흡을 일치시키는 안무는 부드러운 선율이 주는 안온함을 소녀들에게 투사함과 동시에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위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 2. 창작발레 ‘그소녀’의 무대의상 디자인의 실제

‘그 소녀’의 무대의상 디자인을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소재인 만큼, 의상에서 고증된 시대성이 반영되어야 했다.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미지는 소녀상이 대표적이며 일제 강점기 당시의 고증된 복식인 흰색의 저고리에 검정색의 종아리길이의 한복 치마이다. 그림 1의 피해자 중 한 명인 황금주 할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림 2의 전 세계의 여러 장



그림 1. 황금주 할머니의 사진  
 Figure 1. Hwang Geumju's photo



그림 2. 전국 여러 장소에 세워진 소녀상  
 Figure 2. Statues of girls erected in various places across the country

소에 세워진 소녀상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흰색 저고리와 검정치마 차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 발레극인 점을 고려하여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의 치마를 고증을 따르지 않고 모던한 스타일로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두 번째, 무용수의 동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상의 기능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했다. 발레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큰 무용이며 또 극중에서 무용수들이 책상 밑에 웅크리고 들어가 있거나,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드는 등의 역동적인 동작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넓은 소매통과 좁은 치마폭의 ‘소녀상’ 한복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무용수들의 몸에 잘 맞고 활동하기에 편한 기능성을 반영한 아이템을 고안하였다. 세 번째, 이 작품에서 중요한 장면인 해방을 위해 사용하는 끈과 내면의 한(恨)을 표현하는 천 조각에 대한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고려가 필요하였다. 모두 의상과 연결되어야 하면서도 극 중간에 의상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자연스럽게 꺼내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일종의 소도구로서의 효율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소품의 재질, 부피감, 사이즈, 형태 등에 대한 샘플을 제작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었다.

상기의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의상 디자인 초안을 전개하였다(그림 3~5). 첫 번째 조건인 시대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형적 요소는 아이템의 구성과 색상으로 정하였다. 이는 다음 조건인 기능성의 부여와 관련이 있는데, 흰색의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Sleeveless) 상의와 검정색의 좌우 트임이 있는 H 라인 치마로 활동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치마에 팬티를 내장하여 공연중의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상이 무용수의 신체에 안정감 있게 착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끈과 천 조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상에 연결하는가의 문제였다. 결국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끈

은 상의에 연결하여 목에 두르거나 팔에 감는 등 겉으로 보이게 장식적인 역할을 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 조각은 상의 앞쪽에 숨기거나 겉으로 드러나서 장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그림 3의 초안 1은 붕대를 가로로 감는 듯한 슬리브리스 상의에, 투명한 조끼를 걸치고, 검정색의 타이트 스커트를 디자인 하였으며, 그림 4의 초안 2는 붕대를 감는 듯한 슬리브리스 상의의 뒤 중심선에 여밈기능으로 검정색의 긴 밴드를 교차하여 몸에 묶음으로써 장식성, 여밈의 기능성 및 소품으로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림 5의 초안 3은 슬리브리스 상의에 뒤여밈부터 검정의 긴 밴드를 활용하여 고정하고, 몸에도 연결하여 묶는 방식으로 디자인 하였다. 상의 안에 장착되어 허리 부위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붉은 색의 천은 이들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상징하며, 극 중에서



그림 3. 초안 1  
 Figure 3. Idea sketch 1



그림 4. 초안 2  
 Figure 4. Idea sketch 2



그림 5. 초안 3  
 Figure 5. Idea sketch 3

꺼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초안에 대한 검토와 끈과 붉은 천의 활용성 및 기능성을 토대로 의상과의 결합을 여러 번 실험한 결과, 최종 의상 디자인은 그림 6과 같이 정하였다. 먼저 상의의 흰색과 하의의 검정색이 허리에서 끊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의에 검정색의 먹물로 그라데이션 염색을 하여 한국적인 수묵화의 느낌을 도입하였다. 하의인 검정색 치마는 반투명한 세로 줄무늬의 스판 원단을 사용하고 안에 검정 팬티를 연결하였으며, 양쪽 허벅지 위치에 트임을 주면서 겹침분량을 주어, 다리 동작에 의해 치마가 벌어져도 최대한 다리를 가릴 수 있도록 제작하여, 몸에 맞는 H-라인 치마 입에도 불구하고 활동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해방 장면에서 사용할 검정색 끈은 겨드랑이 위치에서 상의에 연결하고 팔에 감긴 채로 유지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풀 수 있도록 끝에 손가락 고리를 장치하였다. 끈은 5% 정도 스판이 들어간



합성섬유 원단으로 제작하였다. 탄성이 좋은 원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팔을 조이게 되고, 또 탄성이 약하면 감긴 상태 유지가 어려워 3-4가지의 원단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실험해 본 결과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한(恨)을 표현하는 천 조각은 그림 5의 초안 3의 붉은색에서 검정색으로 색상을 바꾸었다. 한번 꼬집어낸 천이 계속 옷 위에 있게 되고, 그 다음 장면에서 상의의 앞 중심에 붉은색의 천이 지속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시각적으로 너무 주목도가 커지는 위험이 있어서 상의에 염색한 검정색의 그라데이션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검정색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완성된 의상 디자인은 그림 6과 같으며, 제작된 의상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6. 완성본  
Figure 6. Final Design



그림 7. 제작된 의상  
Figure 7. Produced Costume

#### IV. 결과

<‘그’ 소녀>의 공연의 무대의상을 기존의 확장성에서 도출한 시·공간의 확장성, 조형적인 확장성, 그리고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흰색의 슬리브리스 상의와 검정색의 치마는 상의에 염색된 검정색의 그라데이션 염색으로 이어져, 무채색 구성인 기존의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가 주는 시대성과 수묵에서 나오는 한국적인 서정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팔에 감긴 검정색의 끈들은 소녀들인 갇힌 공간인 감옥을 연상시키는 공간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완성된 의상 디자인은 몸에 붙는 실루엣으로 인체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고 무용수의 동작이 잘 보이는 기능적인 의상이다. 이러한 작은 크기의 인체에 밀착된 의상 상의에서 그림 9와 같이 숨겨진 크기가 큰 천 조각이 나와 확대됨으로써 조형적인 확장성을 주었다. 그리고 작품 진행 시간 동안 팔에 안정적으로 감겨

서 줄무늬를 형성했던 끈이 풀려서 활용됨으로써, 팔의 길이가 실제적으로 연장되어 보이는 조형적인 확장성으로 기능하였다.

세 번째,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으로써의 끈과 천 조각의 역할은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극의 전개동안 대부분 소녀들은 조명이 비추는 공간안에서만 춤을 추었으며 이러한 제약은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억압적인 상황이었다. 유일한 예외적인 장면이 해방의 춤 장면인데, 이때는 무대 전체공간을 꽃 모양의 조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들 피해자들이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자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의상에서 그림 8과 같이 팔에 감겨서 구속의 느낌을 주던 끈들이 풀려나가며, 마치 인체에서 연장된 어떤 긴 끈이 공간을 채우며 춤이 전개되었고, 자유에 대한 표현을 극대화 함으로써,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슴에 맺힌 고통과 한(恨)을 상징하는 천을 꼬집어 내어 관객 앞에 펼쳐 보이는 장면은 동작만으로 전달력이 약한 강한 감정이 마치 심장에서 꼬집어내는 듯한 동작과 소도구의 활용으로 오히려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의상 안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는 천의 의외성은 극적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결국 의상에 의해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의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의상의 확장성 1  
Figure 8. Extensibility of Costum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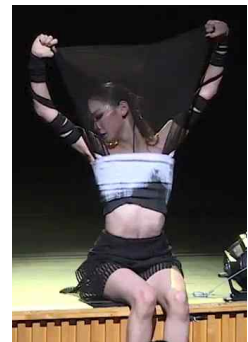


그림 9. 의상의 확장성 2  
Figure 9. Extensibility of Costume 2

#### V. 결론

창작 발레극 <‘그’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역사적 사실 전달 혹은 어떤 견해를 갖고 접근한 작품은 아니다. 안무자는 이들이 겪었을 잔혹한 일에 대한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공감해 주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내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주장해 오고 있는 피해자들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의상의 역할이 기존의 장식적이거나 시대성을 반영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시·공간의 확장성, 조형의 확장성, 그리고 상징적 표현의 확장성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극적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표현을 다룬 다른 공연 작품들과의 비교 연구가 미비한 점이다. 추후 무용 공연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상의 확장성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 A. Jung & S. K. Lee, "Experimentation of Pina Bausch's Drama Theater -from the vout-of-genre, out-of boundary viewpoin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7, No. 1, pp. 174-185, 2019. (DOI 10.17703/IJACT.2019.7.1.174)
- [2] J. Ryu, "A Study on the Stage Costume of Pansori Ballet Theater 'Dokkaeba! Dokkaeba!' Based on Storytell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399-406, May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399>)
- [3] S. Y. Ra, "A Study on the Extensibility of Dance Performances through Digital Media Art Collaboration," Master's thesis of Chung-Ang University, 2016.
- [4] M. Kim & H. Kan, "An Analysis of Multi-View Fashion Design Reflected in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9, No. 2, pp.136-148, May 2015. (<http://dx.doi.org/10.12940/jfb.2015.19.2.136> )
- [5] J. S. Huh, "A Study on the Body Space in Fashion Art," Master's thesis of Hongik University, 2000.
- [6] J. Ryu & N. Y. Hong, "A Study on Expansion of Performance Costumes for the Andrei Serban's 'Different Chunhya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69, No. 2, pp. 1-18, February 2019. (<https://doi.org/10.7233/jksc.2019.69.2.001>)
- [7] J. Ryu, "A Study on the Extensibility of Stage Costume in the Modernization of Changgeuk," Docto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9.
- [8] E. Barba, & N. Savarese, "L'énergie qui danse. Dictionnaire d'anthropologie théâtrale," Paris: Editions l'Entretemps, 2003.
- [9] P. Pavis, "Dictionnaire du théâtre," Paris: Dunod, 1996.
- [1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http://www.korean.go.kr>
- [11] Y. H. Kim, "A Study on the Militar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Jeong Dae-hyeop in the 1990s," Master's thesis of Hallym University, 2002.
- [12] I. M. Kang, "The Study on Asian Countries by Way of Expressing Satiric Method Arts contents awareness to the Issue 'Comfort Wome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JKEIA)*, Vol. 10, No. 3, pp. 97-113, June 2016. (<http://dx.doi.org/10.21184/jkeia.2016.06.10.3.97>)